유가족 입장서 백서 냈다? 정작 유가족은 분노 폭발

정준호 의원 제주항공 참사 백서 후폭풍

"제주항공 이렇게 찬양하나" 빈축
"기억 아닌 변명·추모 아닌 모욕" 비난 댓글 줄줄이 올리며 비판
백서 올렸다 내렸다 다시 올린 정 의원 오락가락 행보도 논란

"제주항공은 가해자입니다. 제주항공이 한 일이라고는 직원들에게 유가족들 케어하라고 시킨 것밖에 없는데, 제주항공을 이렇게 찬양하다니…"

"제주항공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을 받으셨나 봅니다. 그런 제주항공 형사고소한 인정머리없는 유가족들 질타도 좀 담지 그러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최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백서를 발간<광주일보 6월 24일 6면>한 데 대해 유가족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이 '유가족의 입장에서 남긴 기록'이라고 한 것이 무색하게 유가족의 입장과 동떨어진 내용이 적힌 것도 모자라, 유가족 항의가 이어지니 인터넷에 올린 백서 게시물을 내렸다가 밤중에 슬그머니 다시 올리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25일 정 의원의 블로그에 게시된 '<12.29 여객기 참사, 사고 현장에서의 7일> 백서 발간' 게시물에는 오후 7시 현재 20여개가 넘는 유가족들의 항의 댓글이 달렸다.

같은 블로그의 다른 글은 대부분 댓글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거나 1~2개 달린 수준인 데 비해 해당 게시물에만 댓글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게시물에 '본 백서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이뤄진 민·관·정의 사고 대응 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기록이다', '앞으로도 유가족의 입장에서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유가족 지원에 힘써나가겠다'는 등 글을 썼다.

하지만 댓글 반응은 정반대였다. 자신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나는 참사당시 의원님을 보지도 못했고 이후에도 관심을 갖는 모습도 보질 못했습니다. 유가족의 알권리도 빼앗기고 사고 책임자 처벌도 되지않는 참사 진행중인데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신의 치적을 내세우고 싶어서 그런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백서 내용이 유가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원하는게 뭐일까요? 가슴 아픈 유가족의 맘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이런 백서는 폐기대상이죠"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유가족은 해당 백서에 대해 어떤 의견도, 동의도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의 기억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일방적이고 왜곡된 기록이 '백서'라는 이름으로 공개됐습니다. 이것은 기억이 아니라 변명이며, 추모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우리를 배제한 채 쓴 글로 유가족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정 의원이 백서 내용에 대한 유가족 질타에 슬쩍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밤중에 다시 올리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3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유가족들의 항의 댓글이 이어지자, 이튿날인 24일 오전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그 날 밤중에 슬그머니 게시물을 다시 올렸다.

새로 올린 게시물에는 당초 백서 파일까지 첨부돼 있었으나, 이 게시물에도 항의 댓글이 달리자 첨부된 백서 표지 이미지만 남겨놓았다.

정준호 의원실 관계자는 "게시물을 내린 이후 산발적으로 파일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파일을 올렸다가 다시 내린 것"이라며 "파일 용량이 너무 커서 이메일로 첨부할 수가 없어서 블로그를 통해 파일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백서 파일(PDF) 용량은 4.52MB(메가바이트)로, 고화질 사진 한 장 수준에 불과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3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일주일간 행적을 중심으로 사고 수습 과정을 담아 백서를 발간했다. 하지만 사고를 낸 항공사인 제주항공에 대해 '책임감 보인 제주항공'이라며 일방적인 찬사를 적어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미용 광주 북구의원에 대한 칭찬을 무더기 포함하는 등 유가족 입장을 살피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법원, '내란특검 추가 기소 불복'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25일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지난 21일 기각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안했겠죠? 지난 24일 밤 광주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산수동 이면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마약 단속 하루 평균 3건…여성 사범 날로 증가세

'세계마약퇴치의날' 광주·전남 마약 범죄 실태 보니

SNS 통해 접하기 쉬워지며 10대 사범도 계속 늘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최근 연인과 함께 마약을 구입,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58만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주시 북구, 서구 등에서 필로폰 1.5g, 케타민 2g 등을 구입해 연인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에게 233여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면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두 달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여·55)씨는 3900여차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광주시 남구에 있는 병원을 방문해 다른 사람 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160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 등 3959정의 마약을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광주지법에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세계마약퇴치의날(6월 26일)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의 마약 범죄를 분석한 결과, 마약 범죄가 꾸준히 늘어날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최근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검 마약 단속 건수는 1018건에 달한다.

광주 지역의 마약류 사범은 2020년 349명, 2021년 390명, 2022년 372명, 2023년 843명, 2024년 59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의 마약류 사범도 2020년 402명, 2021년 325명, 2022년 406명, 2023년 662명, 2024년 448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광주·전남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 네 명 중 한 명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향정사범'인 것으로 집계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투여 시 의존성 및 중독성이 있어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에는 마약(아편·코카인·펜타닐 등 천연·합성마약)사범 147명, 향정사범 789명, 대마(대마초)사범 109명 등이 검거됐다.

전국 추세를 보면 수년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남성의 비중이 감소하고, 여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5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13.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여성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2023년 32.3%로 최대치를 기록, 2024년 28.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여성 중심의 체중 감량을 위한 '나비약'(디에타민 정),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0대 사범도 증가세다. 전국 기준 2020년 313명(전 연령 대비 1.7%), 2021년 450명(2.8%), 2022년 481명(2.6%), 2023년 1477명(5.3%), 2024년 649명(2.8%) 등 지속적으로 늘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최근 SNS 등을 통해 마약을 접하기가 쉬워지면서 어린 나이의 학생 등도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익명 메신저를 통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등 마약 유통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모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마약을 접하기가 쉬워진 데 비해, 마약의 중독성과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마약을 한 번 투약했다가 국내로 돌아와서도 마약을 찾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마약은 한 번 접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호기심에라도 마약을 투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 잘못" 이경규 경찰에서 혐의 시인

경찰이 24일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물었다. 오후 9시 시작된 조사는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출동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